



‘고향 이야기’

정겨운 고향의 풍경

차정환 교수 8일까지 서울서 사진전

정겨운 고향의 풍경을 모은 사진전이 열린다. 동신대학교 사진영상학과 교수인 차정환씨가 오는 8일까지 서울 충무로 사이드림 포토갤러리에서 ‘고향이아기’ 사진전을 갖는다.

이번 초대전에 차 교수는 순천 낙안마을, 장독대, 부엌, 시골 사람들 등 30년 동안 앵글에 담아온 남도 풍경을 선보인다. 차 교수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한 뒤 국내 최초 자동차 광고사진전을 열기도 했으며, ‘생활사’와 관련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신대 사진영상학과 교수, 문화재 사진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현대미술 가능성 확인

뉴욕 소더비 경매 작품 25점 중 23점 판매

한국 미술 작품이 현대미술품 경매의 본고장 뉴욕에서 가능성을 확인받았다.

지난달 31일 뉴욕 경매회사 소더비가 처음으로 한·중·일 3개국의 현대미술품만 모아 처음으로 실시한 경매에는 국내 원로, 중견, 신진작가 24명이 25점을 출품, 2점을 제외한 23점이 판매됐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로작가 이우환(70)의 추상화 ‘무제(1982년작)’는 5만~7만달러인 추정가의 3배에 가까운 16만8천달러(한화 약 1억6천322만 원)에 낙찰돼 이번 경매에 출품된 한국 미술품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문방울을 그리는 김창열(78) 화백의 1992년 작품은 3만5천~4만5천달러였던 추정가보다 높은 5만4천달러에, 사진작가 배병우의 모노톤 컬러 소나무 사진(2005년작)은 4만8천달러로 역시 추정가보다 높게 거래됐다.

고영훈(3만6천달러), 박서보(3만3천600달러), 김강용(2만1천600달러), 신성희(1만8천달러) 등의 작품은 추정가 범위 또는 다소 높은 가격에 팔렸다.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원로·중견작가들의 작품이 성과를 거둔 것 못지 않게 30대 이하 젊은 작가들도 뉴욕 시장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모던 포크 산 증인 한대수

우리시대 사상이 도올 김용옥의 만남

광주 MBC가 야심차게 진행한 ‘도올 특강-역사를 말한다’(김휘 PD·김인정 작가)가 철학을 노래하고 시대를 만나는 ‘한대수 & 도올 락 콘서트-행복의 나라로’라는 독특한 마지막 강의를 준비했다. 도올이 직접 기획에 참여, 철저한 포크가수 한대수와 함께 꾸미는 이번 공연은 8일 오후 3시 광주MBC 공개홀에서 무료로 열린다(21일 밤 10시 방영 예정).



‘행복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광주 MBC ‘도올특강’ 피날레 공연

8일 ‘물 좀 주소’ 청춘과 록 열창

시절 ‘물 좀 주소’가 물고문을 의미하는 노래라 해 테임을 압수당한 후 뉴욕행을 감행했을 때 타국에서 ‘광주’의 가슴 아픈 상황을 들었다”면서 “광주 공연이 그동안 못 다 나눈 우리시대의 문화와 철학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무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 중간 중간 이야기를 이끌어갈 도올 역시 노래를 부른다. 록 버전의 ‘청춘과 록’을 비롯, 광주·전남 지역의 역사를 주제로 개사한 ‘한오백년’ 등을 부를 예정이고 ‘희망가’ ‘행복의 나라로’ 등을 한대수씨와 함께 열창한다.

“한대수씨는 비틀즈에게 배운 게 아니라, 한국의 비틀즈 그 자체”라고 이야기해왔던 도올이 콘서트에 한씨를 초청한 것은 한씨와 광주가 겪어온 세월에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를 선보였던 한대수, 당대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노래 불렀던 한대수의 삶 속에서 불의에 항거하고, 세상에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광주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씨는 제작진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유신 광주 MBC가 올 1월 첫 방영을 시작한 ‘도올

특강-역사를 말한다’는 ‘동학에서 광주민중항쟁까지’ ‘동아시아 30년 전쟁과 광주민중항쟁’ ‘한국민중의 사상기증’ ‘조국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등 모두 6개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강의를 출품한 E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도올이 본 한국독립운동사’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독립운동사의 중심이 전라도였음’을 인식한 제작진은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을 기획했다. EBS 방송을 제작하면서 나주·완도 등을 방문,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전라도 사람만큼 주체적으로 움직인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했던 도올 역시 광주MBC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또 아버지 고향이 해남이고 외가가 광주의 유명한 ‘홍안과’(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광주 양반들 돈개나 가뭄이었던 병원’)였던 점, 또 광주비엔날레 명예홍보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이 지역과의 ‘인연’도 좀처럼 지방 강연을 하지 않는 도올이 당초 계획보다 많은 횟수의 강연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도올 관련 프로는 지역에서 제작하는 교양 프로그램은 유례가 없을 정도의 호응을 얻었다. 1편의 경우 ‘다시보기’가 4천건을 넘어섰고 시청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제작진은 DVD 제작도 검토중이다. 공연문의 062-360-22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금융웅 대금독주회

5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금융웅(사진) 대금독주회가 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금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자진 한일’, ‘원장현류 대금산조’ 등 대금 독주곡과 함께 어머니인 가야금 주자 이현숙, 아쟁 주자 박지용씨와 함께 ‘육자배기’를 들려준다. 또 스승인 원장현씨가 작곡한 ‘출산조’와 ‘아름다운 추억’ 등 창작곡들도 선사할 예정.

중학교때 가야금을 연주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대금을 배우기 시작한 금씨는 광주예고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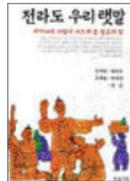
국악 실내악단 ‘수리’ 단원으로도 활동중인 금씨는 제 2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기악부 장원·제15회 경주전국국악경연대회 학생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원장현·박용호씨 등을 사사했다.

강원구(광주시문화재단전문위원)씨가 공연 해설을 맡았으며 박시양(장고), 김덕숙(무용), 강숙향(신디사이저)씨 등이 함께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라도 사투리의 모든 것

땀말 두레 전라도 우리 땀말 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득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

강진 출신 시인 김영랑(1903~1950)의 대표작 ‘모란이 피기까지는’(1934)의 첫 두 행이다. 하지만 이 시는 일반인들에게 ‘모란이 피기까지는/나는 아득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시인은 ‘아득 봄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대 독자들은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둘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전라도 독자와 다른 지역 독자가 소설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읽고 난 뒤 이해와 감동이 완전히 같을 수 있을까. ‘태백산맥’에는 시시때때로 전라도 사투리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소설 속 무지렁이 민초들의 걸죽한 전라도 사투리는 작품의 재미와 생동감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땀말(사투리·사람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배운말)을 사랑하는 5명이 모여 포럼을 만든지 1년여 만에 전라도 땀말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 나왔다. ‘전라도 우리 땀말’(소금나무 펄판)은 포럼 ‘땀말두레’ 회원인 언어치료사 한세입(광주 해남정신과 병원)씨, 시인 조희범씨, 시인 최병두씨, 방송작가 박원석씨, 시인 문틀씨 등이 써내려간 ‘땀말 사랑가’다. 광주·전남 출신인 이들 회원들은 다른 지역에 살면서 땀말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해오다 인터넷에서 한씨의 활동을 접하고 의기투합했다.

책에는 전라도 땀말이 문학작품이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때, 이 밤중에 누수진지 알아야제라. 존 일 헌다도 누수진부터 말씀하시지요.” 소설 ‘태백산맥’의 주인공인 좌익운동가 정하섭이 한 밤중 마을에 잠입, 무당 월녀네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월녀의 딸 소화가 하는 말이다. 이 짧은 문장 하나도 독자는 말하는 사람이 전라도 사투리 아냐는 것을, 불만해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문 밖의 남자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책에 실린 37개의 예화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라도 땀말을 쉽게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전라도 땀말 단문 780개를 풀어 쓰고, 4천500여개의 땀말 단어를 모은 ‘땀말 사전’도 실었다.

‘땀말로 쓴 문학작품’ 공모

‘땀말 두레’는 도서출판 소금나무와 함께 땀말로 쓴 문학작품을 공모한다.

공모작품은 200자 원고지 300매 이상의 중편소설로, 대사는 물론 지문까지 땀말로 써야 한다. 전라도 뿐 아니라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등 모든 지방의 땀말이 대상이다.

작품 마감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당선작 발표는 2007년 1월25일. 자세한 내용은 소금나무 홈페이지(www.sogunnamu.co.kr)를 참고하면 된다. 고료는 1천만원이다.

‘땀말 두레’는 또 각 지역에서 땀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경상도와 제주도를 곧 발간할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자산컨설팅의 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구획
Tel : 062)973-9174, 016-757-8800

수완·신창·첨단지구
택지·상업용지 중개전문

구입상담
주유소·공장, 총전소, 골프연습장, 병원, 복지시설 등
대형사업용 부지

매도상담
대형 토지, 건물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중개합니다

첨단지구 상업용지
100평 115평 150평 202평
550평 600평 1100평 3000평 기어

수완택지개발지구
협의일도인택지, 이주지역지
생활대책용지, 상업용지 등

신창택지 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상가등 2차선집 2500평 3000평
철학등 4차선집 1150평 농로집 200평

우림임야
(복지시설, 기도원, 골프장, 축사 등)
보성 4만평, 9만평

골프연습장, 대형물류유통단지
광산구 1만평, 2만평

호텔, 수익성건물
장성 3000평 해남공단 720평

기타 광주·전남권 토지 건물

장성·담양권 물건구함
매도 매수 교환 보유부식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2천만원~000여원)
062)973-9177, 011-625-1382

변영공인중개사
☎ (대)384-1271~3, 헨 010-3114-0200
상무지구(우리병원) ↔ 새정아울렛(사이)

토지 투자 정보
(광주·전남지역 개발 예정지역주변)
· 서 구: 치평동, 미북동, 유촌동, 미북동
· 광산구: 신암동, 문수동, 지족동 / 남구: 호천역사촌
· 북 구: 오치동 근린상업지역 160평 X 230만
· 해남군: 마산면 학리(관리지역, 도로전)
4,500평 X 5만 5천 (전원농장, 묘지 포함)
·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관리지역(묘지) 850평 X 14만
· 담양군: 담양읍 고서면 보천리 2,260평 X 8만
· 나주시: 금현면 석현리(관리지역) 5,400평 X 14만

모텔·상가 매매/임대
모텔·건물·점포·원룸·고시원·공장·창고
· 고시원 1: 동구 지산동 333평권 대자·70평, 건평·140, 2백·46·고교권 판매용·1,100만원, 매가·7억3천만
· 상가건물 1: 서구 지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자·150, 2백·700·동자+임대·14억, 매가·38억
· 상가건물 2: 서구 지평동 (새정아울렛 옆) 대자·71평, 건평·224(5층), 매가·9억4천

전원주택부지 매매/임대
복지회관·연수원·전원주택·펜션·주말농장
· 연수원: 담양군 청평면 (연수원, 기도원, 수련원 적합) 대지 1000평, 건물 180평, 매가 3억(전·다.조경완료)
· 주 택: 영암군 삼호읍 홍암리 (주거지역) 대지·380평, 주택·40평, 매가·2억

<공동주택부지·유통센터·복지회관·골프장부지>
시행 건축, 시공, 분양, 임대 상담
- 변영 산업개발 컨설팅 사업부 -

국 민 지도
http://www.hanmap.co.kr 국민지리정보(주)

최신정보수록, 3월 도시계획고시안 확정
2006 광주광역시 지적, 임야 약도 판매중
광주광역시 책자 50% 세일 10만원
광주광역시 책자 포켓용 3만5천원

전남전지역 지번도 판매
(매장방문시 사은품 증정)

광 주 지 사 : 062-385-0114
목 포 지 사 : 061-284-7833
순 천 지 사 : 061-744-0973

광주지사 위치: 상촌동 무진로 벼들마을앞

중앙국토개발컨설팅
(헨) 011-647-3500
(광주지방법원 뒷편)

상가, 점포
· 지산동 5층 상가, 대45평, 건 110평, 일권주거지역, 20m 도로, 교통양호, 1, 2, 3층 사무실, 4, 5층 주택, 매도 3억3천만원

원룸
· 계림동 송선관광호텔 앞 원룸, 대지63, 건평 200평 9440평, 지하1층, 지상4층(원룸11개, 부엌3개)

전원주택, 별장용지
· 전남 나주 풍림리, 자연녹지, 880평, 평당20만원, 조경가

쌍방매매
· 광주 남구 알촌동 대촌중앙초교 건너(평간제 옆) 개발제한, 자연녹지, 840평, 평당20만원, 조경가

중고용 임야
· 장성 북이면 원덕리, 25,195평,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구역, 차량출입용이, 계곡이 흐르고 전면에 저수지, 정남향 평당 12,000원
· 광주 동구 소태동, 13,088평, 자연녹지, 차량출입용이, 전기공급됨, 지내에 약수터 소재,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사 있음, 평당12,000원

도지용 임야
· 화순 이십곡리, 너릿재와 검본소 사이 우측 임야, 2500평, 평당 50,000원, 조경가

GS부동산컨설팅
T. 572-7744, 9966
(헨) 011-607-9908
(영산동 그린리더 컨설팅팀 옆)

상가임대

1층: 약국, 금은방, 안경점
2층: 내과, 소아과, 아미인후과
3층: 안과, 치과
4층: 학원, 기타

영산동, 신개발지 중앙거리 코너 APT 5000여세대 밀집 지역 실권 최고

분양권매매

· 영산동 GS 그린리더
· 35평형 분양가 1억5800 3600 납부, 최상층 남향 중건리인 매매가 1억7천
· 42평형 분양가 2억500 1억2천 납부 16층 중건리인 맨앞동 전방최고
· 매매가 2억1천700만
· 49평형 분양가 2억4200 1억5천납부 17층 중건리인 남향 조망권 최고
· 매매가 2억6천
· 56평형 분양가 2억8천 2천800 납부, 풀옵션 10층 조망권 최고
· 매매가 2억8천8백

현진에비빌 다량 확보